



都賣物價 9—11%서 安定勢

국내 수요 부족에 의한 경기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경기 변동에 따라 앞으로의 전망이 가능하나 내년 중의 세계 경기는 상당한 好況이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 인플레이의 결과에 따라서는 78년부터 세계 경기가 하강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러한 인플레이의 우려는 우선 77년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따른 임금 및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이 크게 대두될 뿐 아니라 74~75년의 不況으로 인한 原資材 생산능력이 감퇴된데다가 77년에는 好況으로 인한 수요증가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의 세계 경기는 계속 지속적인 好況局面을 맞이할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국내 경기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밝은 전망이 예측된다.

우선 수출 전망을 보면 금년에는 지난해의 50억 3백만 달러보다 55.9%가 늘어난 7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77년에는 올해보다 28.2%가 늘어난 1백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실물증가율을 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22.1%가 증가할 것이며 이중 船舶 및 鐵鋼 수출액이 10억달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수출전망의 증가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내년의 실질 실효환율은 오히려 6%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반면 해외 경기 상승에 따른 海外 수요증가 요인으로 14.4%의 증가를 기록할 것이며 또 하나 수출 증가 요인으로는 우리 나라의 해외시장 개척 노력으로 인해 13.2%의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國內景氣와 輸出展望

具 本 湖

△韓國開發研究院 副院長▽

景氣好況따른 인플레이 警戒

한편 77년의 GNP成長率을 보면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부문에서 22.1%의 실질 증가가 이루어질 경우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 증가율은 19.5%에 달할 것이며, 농림 어업부문은 4.0%, 非農林漁業部門은 12.8%의 성장을 기록, 전체적으로 11%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획기적인 수출증대에 힘입어 연간 15.0%의 GNP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성장율은 27.6%에 달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여진다. 이 경우 GNP 成長率은 11%를 가정하고 있다.

요인별로 보면 우선 輸入單價상승이 10%로 예상돼 국내 도매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은 3.3%로 예상되며 철도요금 등 物價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잠재요인이 1.2% 등으로 해외요인과 기타 잠재요인을 합해 4.5%의 도매물가 상승요인이 있다. 이는 通貨量 증가율에 관계없이 도매물가 상승이 예상되며 여기에 통화량 증가에 따른 초과 통화로 인해 物價상승에 기여하는 율이 20%인 경우 4.5%, 22%인 경우 5%, 25%인 경우 7.0%의 물가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를 종합해 보면 通貨증가율이 20%인 경우의 도매물가 상승은 9%,

76-77 經濟成長推計

	1975	1976		1977	
		規 模	增加率(%)	規 模	增加率(%)
商 品 輸 出(백만불)	5,003.0	7,800.0	55.9	10,000.0	28.2
輸出單價指數 (1970=100)	148.4	166.2	12.0	174.5	5.0
實 質 商 品 輸 出(백만불)	3,371.0	4,693.1	39.2	5,730.7	22.1
製造業附加價值 (10억원)	1,324.7	1,690.5	27.6	2,020.1	19.5
農林漁業附加價值(10억원)	893.1	973.5	9.0	1,012.4	4.0
非農林漁業附加價值(10억원)	3,236.2	3,775.2	16.7	4,258.7	12.8
國 民 總 生 產(GNP)	4,129.3	4,748.7	15.0	5,271.1	11.0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物價문제이다. 物價에 관한 金利政策과 通貨政策이 가장 중요하다. 앞서 얘기한 경제성장 전망 등 역시 金利와 換率에 있어서 어떠한 변동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것이지만 物價에 있어서도 金利에 어떠한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物價는 通貨 증가율에 의해 거의 좌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77년의 通貨 증가율이 20%일 경우 도매물가 상승율은 9%, 통화증가율이 22% 및 25%일 경우는 각각 10.0% 및 11.5%의 도매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

2%인 경우 10%, 25%인 경우 11.5%의 도매물가 상승이 각각 예상된다.

그러나 總資源 예산상에 計上된 通貨 증가율 20%는 GNP成長率을 10%로 잡았을 때이며 GNP成長率이 11%로 예측될 경우 通貨증가율은 22% 이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같이 볼 때 내년도의 도매물가 상승은 10%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어쨌든 해외 경기에 크나큰 변동이 없는 한 내년도의 국내 경기는 지속적인 好況局面이 지속될 것이며 정부의 總資源예산이 명시된 목표보다 상당히 초과 달성될 것이 틀림없다.